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6년 제9차 이사회 회의록

소집통보일		2026.7.9.(목)		
구 분	이 사	감 사	계	
임원정수	9명	2명	11명	
재적임원	9명	2명	11명	
참 석	9명	2명	11명	
불 참	0명	0명	0명	

1. 일 시 : 2026.7.20.(월) 14:00 ~ 18:58

2. 장 소 : 조선대학교 본관 2층 법인회의실(2137호)

3. 임원 참석 현황

- 참석 임원

- 이사 : 이사장 안병욱, 이사 김선아, 이사 신윤숙, 이사 이근우, 이사 김성재, 이사 박미경, 이사 정채웅, 이사 김규탁, 이사 고길석 (이상 9명)

- 감사 : 감사 김정호, 감사 이현필 (이상 2명)

- 불참 임원

- 없 음

4. 배석 현황

- 법 인 사 무 처 : 사무처장 정권철, 법인팀장 조은정, 사업운영팀장 및 안전관리팀장 고철, 기획감사팀장 박승모
(법인팀 윤진혁은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배석함)

- 조 선 대 학 교 : 총장 김춘성, 부총장 강희숙, 대학원장 김도경, 기획처장 최홍석, 교무처장 강혁신, 연구처장 권구락, 취업학생처장 조운성, 총무관리처장 김영목, 글로벌대학추진단장 김선중, 앵커사업단장 신종호

- 조 선 이 공 대 학 교 : 총장 이응재, 교무입학처장 이윤기, 학생취업처장 진재식, 총무처장 김규철, 기획예산팀장 손용준

- 조 선 간 호 대 학 교 : 총장 박명희, 기획산학처장 최미정
- 조 선 대 학 교 병 원 : 병원장 최남규, 기획조정실장 신병철, 총무부장 오건진, 기획팀장 김형진, 기획팀원 이철민
- 조선대학교치과병원 : 병원장 임성훈, 총무부장 김상수, 총무팀장 문우영
- 호남권역재활병원 : 병원장 문경래, 행정관리팀장 박승재
- 학 교 법 인 조 선 대 학 교 개방감사추천위원회 위원장 : 양고승

5. 심의·의결 안건

- (1)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개방감사 선임(안)
- (2)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
- (3) 개방감사 후보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의 건

6. 보고 사항

- (1) 법인 및 산하기관 현황 보고

7. 회의 내용

■ **성원보고 및 개회 선언** : 정권철 사무처장이 성원을 보고(이사 7명, 감사 1명 출석)하자, 안병욱 이사장이 이를 확인하고 「정관」 제32조(이사회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에 의거하여 개회를 선언하다.

■ **전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 : 정권철 사무처장이 전차 이사회 회의록의 주요 결의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안병욱 이사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물어 이의 없음을 확인하다.

1호 의안.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개방감사 선임(안)

안건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개방감사 선임(안)을 상정함

논의 내용 :

- ① 정채웅 이사가 안건 심의에 앞서 A 후보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검토하고, 이의신

청 인용 여부에 대해 별도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제안함

- ② 아직 출석하지 않은 이사들을 고려하여 이사 전원의 출석이 완료되면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함

<김규탁 이사가 14:10분에 회의실에 입장함>

보고사항 1. 법인 및 산하기관 현황 보고

보고사항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법인 및 산하기관 현황 보고를 상정함

<법인, 조선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치과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순으로 현황을 보고하기로 함>

법인 현황 보고 : 정권철 사무처장이 학교법인조선대학교의 건학이념과 연혁, 법인 조직도, 임원(이사·감사) 현황, 유지 경영학교(기관) 현황, 법인 및 산하 각 기관의 일반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함



<김정호 감사가 14:53분에 회의실에 입장함>

조선대학교 현황 보고 : 김춘성 총장이 조선대학교의 조직 및 편제, 재정·교육용 재산 현황, 학생·교원·직원 현황 등 대학 일반 현황과 함께, 조선대학교 국립화 추진 방안, 조선대학교-조선간호대학교 통폐합 승인, 노동조합 임금교섭(교원·직원) 현황, 건축물 신·증축 진행 및 노후 건축물 현황, 글로벌대학30 사업·앵커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 경과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함

<고길석 이사가 15:14분에 회의실에 입장함>

논의 내용 :

- ① 신윤숙 이사가 2027학년도부터 신설되는 특성화 단과대학(바이오메디대학, 에이지테크대학, 라이프케어대학)과 기존 단과대학 간 학과 소속의 중복 여부 및 학장 등 행정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함. 이에 김춘성 총장이 각 학과는 하나의 특성화 대학에만 소속되며, 다만 기존 단과대학이 일정 기간 함께 유지되어야 하는 만큼 부학장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
- ② 김선아 이사가 특성화 대학에 참여하는 일부 학과에서 운영 방향에 대한 지침을 받지 못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학 차원에서 학과별 추진 기준을 제시하고 소속 학과 대표자 회의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김춘성 총장이 글로벌대학30 사업계획서에 융합 교육과정의 운영 방향이 제시되어 있고 세부 교과목 설계는 각 학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답변함. 이어 최홍석 기획처장이 5월 중순부터 전공자율선택제 운영과 관련하여 전체 공청회 및 특성화 대학 단위별 학과장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 공간·직제·학과 운영 방식 등 파생 과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7월 말 기획위원회를 거쳐 8월 이사회에 직제 개편(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함. 아울러 2027학년도 입시 요강에 특성화 대학의 운영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답변함
- ③ 김선아 이사가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과 같이 지나치게 긴 단과대학 명칭의 개선을 건의함. 이에 최홍석 기획처장이 직제 개편에 따라 해당 단과대학은 재학생 재학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만 존치되고 이후 바이오메디대학 등 특성화 대학 체제로 전환된다고 답변함
- ④ 안병욱 이사장이 노동조합 임금교섭 과정에서의 법인 관여 정도에 대해 질의함. 이에 김춘성 총장이 권한 위임을 받아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결정 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해 노동조합의 불만이 있다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함. 이에 대해 정채웅 이사가 단체협약의 사용자는 학교법인 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단체협약은 법률상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인사·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를 노동조합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여야 한다고 발언함. 안병욱 이사장은 교섭 과정에서 법인과 대학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여 대학 본부의 합의안이 이사회의 의견과 수렴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함
- ⑤ 안병욱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국립화 추진 방안과 관련하여 대학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

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질의함. 이에 김춘성 총장이 2035년 이후 학령인구 급감이 예상되는 만큼 국립화 또는 철저한 사립화 중 대학의 방향을 조기에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대학으로 거듭난 뒤 국립화를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힘. 이어 강희숙 부총장이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함께 대학의 정체성 전환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안병욱 이사장은 본 사안에 대해 별도의 기회에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함

<안병욱 이사장이 15:25분에 정회를 선언함>

<안병욱 이사장이 15:33분에 개회를 선언함>

3호 의안. 개방감사 후보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의 건

안건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개방감사 후보자 추천 절차에 참여했던 A지원자의 이의신청문건에 따라,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제34조(이사회 소집)에 의거하여 이사 전원에게 당일 안건 상정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개방감사 후보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의 건을 상정함

제안 설명:정권철 사무처장이 개방감사 후보 지원 서류는 2026년 7월 3일까지 접수하였고 같은 날 09시 20분에 A 지원자가, 10시 20분에 B 지원자가 각각 접수하였다고 설명함. 접수 마감 전일인 7월 2일 오전 B 지원자에게 지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실제로 지원자가 없었으므로 허위 사실을 제공한 것이 아니며, 지원자 존재의 유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방감사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고 경과를 설명함

논의 사항 :

- ① 김정호 감사가 개방감사 임기 만료에 따라 법조인 2인에게 공모에 응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고, B 지원자는 자발적인 의사로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특정인을 내정

한 것이 아니라 공모에 응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고, 응모 이후의 심사와 선정은 전적으로 개방감사 추천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발언함

- ② 정채웅 이사가 지원자가 없다는 발언은 당시 기준으로 사실에 부합하므로 허위 사실로 볼 수 없고, B 지원자가 A지원자에게 보낸 문자 역시 인사 차원의 것으로 보이며, 두 후보 지원자 모두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심의된 이상, 지원자 존재 유무를 통지한 것이 추천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③ 박미경 이사가 사무처장의 발언 시점이 접수 마감 전일이라는 점이 확실한지 확인하였고, 정권철 사무처장이 당시 통화 및 문자로 확인된 사실임을 답변함. 이어 정채웅 이사가 이의신청서상 '신청인이 개방감사로 선임되었을 개연성이 박탈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A지원자가 단독으로 지원하였더라도 추천위원회가 해당 후보자를 반드시 추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힘
- ④ 안병욱 이사장이 이의신청서의 각 항목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요청은 이사회가 응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고, 허위 정보 제공 및 지원 종용 주장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지원자 존재 유무의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널리 물색하여 공모 응모를 권유하는 개방감사 제도의 성격상 대외비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함. 이에 대해 김정호 감사와 정채웅 이사도 공모에 응할 것을 권유한 것은 초빙이나 내정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⑤ 안병욱 이사장이 개방감사 후보자 공모, 추천위원회 개최, 면접 심사 및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정관」이나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하되 그 사유를 정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개방감사 후보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의 건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해당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개방감사 선임 절차를 속개하기로 의결함

1호 의안.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개방감사 선임(안)

안건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개방감사 선임(안)을 재상정함

제안 설명 : 양고승 개방감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 개방감사 선임(안)은 김정호 현 감사의 임기가 2026.9.16.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관」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제6항에 의거, 개방감사추천위원회에서 개방감사 선임 대상자로 김정희 후보자를 단수 추천한다며 추천 사유, 경과 및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아래의 후보자를 개방감사로 선임하기로 함

- 성 명 : 김 정 희
- 임 기 : 2026.9.17. ~ 2028.9.16.

결의 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개방감사 선임(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개방감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정희 후보자를 개방감사로 선임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함


 <안병욱 이사장이 보고사항 1. 법인 및 산하기관 현황 보고를 속개함>

조선간호대학교 현황 보고 : 박명희 총장이 대학 연혁·조직 등 일반 현황,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핵심역량, 재정지원사업 및 인증평가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함

논의 내용 :

- ① 정채웅 이사가 조선대학교와 조선간호대학교의 통폐합이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며 박명희 총장의 기여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학과 통합 및 행정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석을 잘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함
- ② 고길석 이사가 통합 후 대학 명칭 및 현장 실습 협약 기관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졸업생들이 의료 현장에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인성 및 직업의식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함

③ 안병욱 이사장이 통합에 따른 직원 고용 승계 범위에 대해 질의함. 이에 박명희 총장이 정규 직원 13명만 승계되고 계약직 직원은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정리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함. 안병욱 이사장은 금번 통합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이 향후 조선대학교의 조직 개편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박명희 총장에게 통합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해 줄 것을 당부함

조선이공대학교 현황 보고 : 이응재 총장이 대학 연혁, 조직도, 교직원 현황, 학생 현황(신입생 총원 추이, 재학생 지역 분포 등), 재무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함

논의 내용 :

- ① 안병욱 이사장이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들의 교육 내용 및 취업 현황에 대해 질의함. 이에 이응재 총장이 해당 학과는 조리·제과 분야로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많아 취업률이 다소 낮게 나타나나 학생들의 선호도는 여전히 높다고 답변함
- ② 신운숙 이사가 현황 보고에 향후 추진 과제, 특히 조선대학교와의 통합 준비 및 구성원 의견 수렴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함. 이에 이응재 총장이 24개 학과를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우선 추진한 뒤 구성원의 동의를 거쳐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답변함. 이에 신운숙 이사가 글로벌대학30 사업계획서상 2027년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이 예정되어 있고, 연차 평가에서 통합을 이행하지 못한 대학이 지정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환수당한 사례가 있는 만큼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함
- ③ 정채웅 이사가 24개 학과 전체를 일시에 통합하는 것은 교원·직원·학생 문제와 교육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용이하지 않으므로, 조선대학교로의 편입 수요가 많은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부터 우선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다 구체적인 통합 계획안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에 이응재 총장이 통합은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 하겠다고 답변함
- ④ 안병욱 이사장이 정원외 재학생 및 만학도 현황과 실습 중심 교육과정의 교원 운영 방식에 대해 질의함. 이에 이응재 총장이 25세 이상 만학도가 취업·창업 및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진학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70% 이상이 실험·실습으로 구성되어 현장에 종사하는 겸임교원과 시간강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졸업생의 현장 적응력이 높다고 답변함

<안병욱 이사장이 16:59분에 정회를 선언함>

<안병욱 이사장이 17:05분에 개회를 선언함>

조선대학교병원 현황 보고 : 최남규 병원장이 병원 현황(의사직·간호직 등 직종별 인력 현황, 조직·시설 등), 경영 현황 및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함

논의 내용 :

- ① 고길석 이사가 연차별 전공의 수 및 전임의(펠로우) 수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함. 이에 최남규 병원장이 인턴 37명, 전공의 1년차 35명 수준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비 약 23%에 불과하여 부족한 실정이며 근본적인 원인은 병원 규모의 한계에 있다고 답변함. 최소 50% 이상은 자교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병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전임의는 전공의 사태로 공백이 있었으나 금년 9월부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함
- ② 고길석 이사가 재활의학과와 전공의 미수련 장기화 문제와 순환기내과 당직 체계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함. 이에 최남규 병원장이 재활의학과는 현재 체제로는 해결이 어려워 별도의 전문의 채용 및 분과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신병철 기획조정실장이 순환기내과는 교수 5인이 당직 체계를 운영하며 급성 심근경색 환자 발생 시 1~2시간 내에 대응하고 있고 시술 공간 확충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함
- ③ 고길석 이사가 병상 가동률(2024~2025년 58%)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함. 이에 최남규 병원장이 의정 사태 이후 저조하였으나 현재는 75%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미개방 병동을 개방하면 추가 상승이 예상되며 80% 이상을 목표로 하겠다고 답변함
- ④ 박미경 이사가 주차타워 및 부대 지원시설 개발 사업의 추진 경위에 대해 질의함. 이에 최남규 병원장이 노후 주차타워의 안전성 문제와 병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학과 협의 중이며, 주차 규모를 630대에서 1,300대 이상으로 확충하고 기부채납 방식을 통한 비용 절감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추진하

겠다고 답변함

- ⑤ 정채웅 이사가 병원 신축 부지의 종 상향이 당초 2025년 및 금년 상반기 완료 예정으로 보고되었음에도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질의함. 이에 최남규 병원장과 신병철 기획조정실장과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재구성 및 관련 부서 인사이동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연말 완료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함
- ⑥ 고길석 이사와 김규탁 이사가 병원 신축 부지에 관한 결정이 3년 전에 이루어진 것인 만큼 광주·전남 통합,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문 앞 대로변 부지 등 대안 부지의 검토와 교수·직원 등 구성원의 의견 수렴, 과거 신축 부지가 변경된 경위에 대한 보고를 요청함. 이에 이근우 이사가 종 상향은 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대학이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전남 지역 의과대학 신설 논의 및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병원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정채웅 이사는 대학 운동장 등은 교육용 기본재산에 해당하여 용도 변경 시 관할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함. 이에 최남규 병원장이 병상총량제로 인하여 신축하더라도 현재 인가된 818병상을 초과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함
- ⑦ 안병욱 이사장이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병원 신축 부지 및 규모 확대 방안, 과거 신축 부지 결정 경위 등을 종합한 조선대학교병원의 중장기 발전 계획(안)을 마련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함. 이에 최남규 병원장이 전체 교수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함

조선대학교치과병원 현황 보고 : 임성훈 병원장이 병원 현황(사업 범위, 연혁, 조직, 인력, 시설 및 규모), 경영 현황(환자 수, 경영 실적, 손익계산서, 전국 치과대학병원 비교) 및 주요 추진 과제(환자경험지수(PEI) 관리, 병원 내부 리모델링 공사, 병원정보시스템 개선)에 대해 보고함

논의 내용 :

- ① 김규탁 이사가 타대학 치과병원과의 진료과별 진료 수익 비교에서 구강악안면외과의 수익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이에 임성훈 병원장이 타대학 치과병원의 해당 수익은 대학병원 외과에서 발생한 진료 실적으로 환자 수익 차이에 기인한다고 답변함

② 고길석 이사가 교수 충원을 통한 수익 확대 가능성에 대해 질의함. 이에 임성훈 병원장이 인력은 환자 수에 연동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어 무리한 증원은 어렵다고 답변함. 고길석 이사는 치과병원의 수익 증대를 위해 교수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함

③ 고길석 이사가 진료협력센터의 운영 여부와 의뢰 환자가 전공의의 초진을 거쳐 교수 진료까지 장기간 대기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함. 이에 임성훈 병원장이 현재 진료협력센터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초진은 가급적 교수가 직접 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의뢰 환자에 대해서는 교수가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함

④ 고길석 이사가 조선대학교병원과 치과병원 간 교수 보수의 격차에 대해 질의함. 이에 임성훈 병원장이 의과대학병원의 인상 시 함께 인상하지 못하여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

⑤ 안병욱 이사장이 간호 인력 규모, 졸업생의 진료, 주차 여건 및 수익 감소 요인에 대해 질의함. 이에 임성훈 병원장이 간호사는 구강악안면외과에 한정하여 근무하고 대부분 치과위생사와 조무사, 전공의 및 실습 학생이 진료를 보조하고 있으며, 졸업생은 대부분 개원하나 광주·전남 지역이 포화 상태여서 타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함. 또한 임플란트 분야의 저수가 경쟁으로 이 분야에서 전년 대비 수익이 감소하였고 대학치과병원은 난이도가 높은 사례가 많아 환자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함. 주차는 환자 전용 구역 운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인접 주차장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

호남권역재활병원 현황 보고 : 문경래 병원장이 병원 일반 현황과 환자 수·경영 현황, 주요 추진 과제 등에 대해 보고함

논의 내용 :

① 고길석 이사가 소아 낮병동의 운영 방식에 대해 질의함. 이에 문경래 병원장이 6시간 이상 체류 시 입원환자와 동일하게 산정되며 현재 대기 환자가 100여 명에 이른다고 답변함

② 김정호 감사가 재활병원 위·수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수탁 여부에 대한 병원장의 의견을

질의함. 이에 문경래 병원장이 개원 초기 투입한 법인 자본금 64억 원 외에는 법인의 추가 부담 없이 운영해 왔으나 낮은 수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운영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적자를 전액 보전한다면 계속 운영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철수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③ 이근우 이사가 광주특별시의 적자 보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익이 없는 위탁 운영을 지속하기보다 조기에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④ 정채웅 이사가 관련 조례상 위탁 기간이 5년이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추가 수탁이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수탁 종료 시 직원의 고용 및 임금 등과 관련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 피고가 되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김정호 감사도 광주광역시 제2시립요양병원 폐쇄 관련 소송 사례를 들어 동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⑤ 안병욱 이사장이 위·수탁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종료 시 필요한 절차와 후속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분석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함

결의사항 : 법인 및 산하기관 현황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함

<법인사무처에서 신입 임원을 대상으로 안내 자료(조선대학교 포털시스템 사용 방법, 임원 웹하드 이용 방법,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산하기관별 예·결산 현황 설명)를 배부하고 안내함>

2호 의안.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

안건 상정 : 안병욱 이사장이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정권철 사무처장이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로 안병욱 이사장, 김성재 이사, 정채웅 이사를 선정하기로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안병욱 이사장, 김성재 이사, 정채웅

이사가 날인하기로 가결함

폐회 선언

폐회 선언 : 안병욱 이사장이 더 이상의 질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함



【결 의 사 항】

1.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개방감사 선임(안)은 출석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개방감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정희 후보자를 개방감사로 선임하기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2.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안병욱 이사장, 김성재 이사, 정채웅 이사가 날인하기로 가결하다.
3. 개방감사 후보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의 건은 출석 이사 9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해당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개방감사 선임 절차를 속개하기로 의결하다.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함.

2026. 7. 20.

이	사	장	안 병 옥	안병옥
이		사	김 선 아	김선아
이		사	신 윤 숙	신윤숙
이		사	이 근 우	이근우
이		사	김 성 재	김성재
이		사	박 미 경	박미경
이		사	정 채 웅	정채웅
이		사	김 규 탁	김규탁
이		사	고 길 석	고길석
감		사	김 정 호	김정호
감		사	이 현 필	이현필